

'교과서철'에 느끼는 달갑지 않음

바야흐로 교과서철, 참고서철이다. 요즘 같아서 서울 교보문고 등의 대형서점에는 아예 들르지 않는 것이 속편하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사러온 '학생인파' 때문에 이것 저것 게으르게 책장을 들춰보며 책을 고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설까, 교과서나 참고서와는 이제 무관한 나이가 돼버린 일반독자에게 이즈음 서점들의 호황은 썩 달가운 것이 못된다.

그같은 '달갑지 못함'은 출판계를 바라볼 때도 그대로 반복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서점은 교과서로 호황인데, 출판계는 그 교과서 때문에 '적막장산'이다. '교과서 때문에'라는 게 과연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책이 없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책이 없는가? 궁색하지만 결국 가능한 대답은 '교과서 때문에'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과서에 '치일'우려 때문에 신학기에 일반단행본을 출고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왔던 것이 우리 출판계의 저간의 관행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출판구조의 두가지 취약성을 발견한다. 그 하나는 독서인구의 '질'의 문제로서, 독자들의 구매능력이 교과서나 참고서쪽에 쏠려 일반도서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학생층이 아직도 우리 독서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그같은 학생독자의 크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 일반단행본 출판은 교과서

나 참고서출판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종속까지는 아니더라도 '連動'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 같아 보인다. 일반단행본 출간이 자체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나 참고서 출판에 종속되거나 연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반교양물이 교과서나 참고서의 '눈치'를 살피는 가없는 꼴이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리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책은 선거홍보물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선거 홍보물의 종이수요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 지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처럼 책은 또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연말이 되면 캘린더 인쇄 때문에 또 책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책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 출간될 수는 없는 것일까? "요즘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참고서가 통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 — 강철주 부장

출판저널

통권 제 57호 / 1990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堯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潘慶煥 李權雨 鄭素淵 洪賢淑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全惠敬

업무차장 — 尹東鎬
 임무·광고 — 崔兌源 李義天 崔炳天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전산사식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完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價鋪廈 安秉永 安輝滂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錫巖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勝羽 李元勳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 성명, 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3월2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59호(90년4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주)시사영어사에서 펴낸 「엘리트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현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출제했습니다. 다음의 가로 및 세로열쇠를 읽고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가로열쇠
 ②박인환의 대표시. 버지니아 울프가 등장한다. ④1941년에 나온 정지용의 시집. 자연과의 합일과 화해를 노래했다. ⑥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민나라 구우의 전기소설 ⑨ 1955년 간행된 박목월의 첫시집. ⑪ 이광수의 대표장편. 최초의 근대소설로 꼽힌다. ⑫ 「사랑국」의 시인 ⑬在北작가白石의 유일한 시집. 1936년刊 ⑮ 「피안감성」에 이은 고은의 제2시집. 제주체험이 인상적으로 묘사돼 있다. ⑰ 일제시대 두만강변 사람들의

삶을 그린 김동환의 장편서사시. ⑱ 황동규의 제2시집. 슬픈 노래라는 뜻. ⑳ 김지하의 첫시집. 한동안 판금됐었다.

세로열쇠
 ① 박목월·조지훈·박두진의 합동시집 ③ 1939년에 나온 김광균의 첫시집 ⑤ 김기림의 첫시집으로 장편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⑦ 불교적 인연설화를 그 시적 고향으로 드러낸 서정주의 제4시집. ⑧ 신경림의

첫시집. 제1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했다. ⑨ 김소월의 대표작.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⑩ 서정주의 첫시집. ⑬ 「내거리의 순이」가 그 첫머리에 실려 있는 임화의 시집 ⑭ 모운숙의 연시집 ⑮ 「사람의 아들」 영웅시대의 작가 ⑯ 1972년에 나온 정현종의 첫시집. ⑰ 1975년 창작과비평사에서 간행된 조태일의 제3시집

제55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대해주신 독자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5호(2월 5일자) 퀴즈에 응대해온 엽서는 모두 86통, 이중 정답자는 54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열	하	일	기			이	
	동	국	이	상	국	집	
이	장	문				선	
소	유	선	유	생			
	가	사	배	비	장	전	
	낙	기	뱅	유	약		
	선		수	이	전	장	
신	재	효	국	성	가		
	문	원		장	진	주	사
	고	문	진	보	각	몽	

- 당첨자**
- 홍영숙(서울 성동구 구의동 241-36 24동1만)
 - 전선하(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 APT. 73동 401호)
 - 이정근(경북 상주시 인봉동 50-1)
 - 강세림(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5-22)
 - 황난아(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 APT.45동102호)